

# 다이소와 100엔숍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오랜만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이가 나를 부른다.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돌렸는데, 아漂亮! 책이 찢어지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내가 손가락 힘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일단 찢어진 책을 보수하기 위해 투명 테이프를 찾아본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새로 테이프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어디에서 테이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간단한 의문에 여러 가지 답안이 머릿속을 맴돈다.

먼저 최근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방법은 인터넷 쇼핑물이다.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그런데 투명 테이프 하나를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것이다. 당장 택배비가 테이프값보다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주문한다. 금액이 커지면 택배비가 무료로 변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테이프가 필요하고 굳이 함께 살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곳은 문구점일 테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 문구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전엔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곳에 있었던 문구점이 어느 건물 4층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편의점인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투명 테이프를 본 기억이 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투명 테이프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명 테이프 하나를 당장 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 더 선택지가 있었다. 바로 다이소에 가면 투명 테이프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보니 최근 다이소 매장이 여가저기 많이 생겨서 적어도 내 생활 반경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이소는 일본 100엔숍 중 하나의 브랜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일본의 100엔숍은 생활 잡화와 문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비하고 가격은 100엔으로 균일하게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여러 가게들이 재고 처리와 미끼 상품으로 100엔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100엔 제품만 판매하는 상설 매장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쳤고 100엔숍은 급속히 점포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불황 시대의 성장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다이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물론 경기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다. 문구점이 사라진 것처럼 철물점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대형 마트를 찾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소를 더 찾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투명 테이프를 하나 사기 위해 펼쳤던 상상의 나라가 다이소에서 멈춘 것처럼 말이다.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여대의 품격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촉발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전국 여대로 번졌다. 현재까지 전국 4년제 7개 여대 중 이화여대를 제외한 여대 6곳이 남녀공학 반대 시위에 돌입하거나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동덕여대에는 '공학전환반대' 등의 문구가 교내 인파의 건물은 물론, 아스팔트와 보도블록까지 붉은 스프레이로 새겨졌다. 동덕여대 측이 추산한 피해액은 54억여원에 달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대학의 조처가 미흡하며 학생들이 시위 중인 서울여대도 캠퍼스 곳곳에 붉은 라커가 칠해졌다.

여자대학교는 가부장제가 확고했던 시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설립됐다. 대학마다 전신과 기원을 어디

에 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만, 이화여대(1886년), 숙명여대(1912년), 성신여대(1936년), 동덕여대(1950년) 등 대부분 여대가 설립된 시기를 봐도 알 수 있다.

여대의 존재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20여 년 전부터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섰던 시대. 특히,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리며 여대의 역할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은 확대됐다. 사실상 여성의 '사회적 힘'이 커진 상황도 이를 뒷받침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대의 존재 가치에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아직은 사회 곳곳에 여성 차별 문제가 잔존하고 있고, 여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간 여대가 여성 지도자로서 교육받을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음에도 사회적 이견이 없다. 여대생들이 "들고 일어나기에" 그 이유가 충분하단 의미다.

하지만 시위 방법에는 아쉬움이 남는

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당시, 여의도에서 열린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당국에 관련 사건 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열맞춘 바둑돌 같다'라는 표현마저 곳곳에서 나왔다.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 들마저 '선생님들 집회 응원한다'며 이례적인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웬은칼보다강하다." 사고·인론·저술·정보의 전달은 직접적인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환유한 말이다. '시위'는 쉬이 '칼'로 비유되지만, 지난 서이초 교사 관련 집회 당시 질서정연했던 교사들의 집회 모습은 '웬'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번 여대시위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칼'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대생들이 자신의 대학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할 길 기대해 본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돼지띠와 계약이 잘 성사. 48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60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72년생 변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여 일귀내자. 8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는다.



37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49년생 이사해도 재화로 남비를 줄여야 한다. 61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73년생 이직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우물을. 85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3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0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야 한다. 62년생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74년생 주식투자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86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39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51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63년생 내가 편안해야도 잘 풀린다. 75년생 여행으로 지출이 많아지니 사전 계획을 꼼꼼히. 87년생 오늘의 자산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40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52년생 집안 청소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보라. 64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럭저럭 맛있는 밥이니 마음을 비워라. 76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시작. 88년생 후배의 참석으로 모임이 즐겁다.



41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53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남편을 본다. 65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 7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실타래를 풀자. 89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42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하자. 54년생 횡재수로 재운이 있다. 6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78년생 너 자신을 알라처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90년생 자기진단하지 말고 병원을 가보라.



43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55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6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9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느낌. 91년생 무지개를 쫓아가나 잡지 않는다.



44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56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68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80년생 병도 약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92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나야 하는 날.



45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7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득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69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81년생 불만이 있어도 차분히 고쳐나기도록. 93년생 인생사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46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5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70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82년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에 실망 말고 약속부터 실행하여. 9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47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59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1년생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어제부터 시작한 일에 마무리가 작게 실리가 이어져도 감사하. 95년생 마음의 상처를 없애기 위해 하루가 고단.



## 김상회의四季

### 머피의 법칙 오해

'머피의 법칙' 마음먹고 세차를 했는데, 새로 산 옷을 입고 데이트를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회사나 만남에 늦어서 조마조마한데 내가 탄 버스가 택시는 신호마다 걸리는 식이다. 굳이 머피의 법칙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실은 흔한 일이다. 이를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은 미국의 에드워드 머피라고 한다. 그는 미 공군 대위였는데 1949년 미국 공군의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중력 한계를 찾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부하 기술자들이 자신이 설계한 전극봉을 전부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하는 터무니없는 실수로 인해 실험은 전부 0이 나왔다. 이후 그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꼭 그 방법을 쓴다'는 법칙을 만들었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일종의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는 인식을 보통 명사화했다. 그러나 조작 실수로 실험값만 0이 나왔을 뿐, 이 실험결과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면 인체는 극심한 충격도 버틸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후에 자동차 안전벨트나 에어백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의 감소를 이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머피의 법칙을 얘기하면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같은 부정적 징크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실재는 "잘못될 만한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교훈적인 발언이다. 에드워드 머피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요즘 사람들이 머피의 법칙을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안다면 망연자실 할 것만 같다.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뉘앙스였던 것이 불운의 대명사처럼 쓰이니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증가시켜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2	9	1			3	
5	3				7		6	
		5	1					2
3								5
9						4	1	
1			2					
	7	6					8	3
6			8	4	1			

4	1	8	9	8	4	9	6	2
9	4	2	1	6	8	8	4	7
2	8	6	9	8	7	4	9	1
9	6	4	8	2	1	8	9	4
4	9	1	6	4	8	2	8	9
8	2	8	4	9	9	1	4	6
1	4	9	8	6	2	9	4	8
6	4	1	1	9	8	4	2	8
8	8	2	4	4	9	6	1	9

6	9	1	4	8	4	8	9	2
8	8	2	1	6	9	9	4	4
4	4	9	8	9	2	8	6	1
9	1	4	8	8	9	4	2	6
9	6	8	2	4	1	9	4	8
2	4	8	6	9	4	1	9	8
8	2	4	9	4	8	6	1	9
1	9	6	4	2	8	4	6	9
4	8	9	1	6	2	8	4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